

대학별 수시 전형 유형별 반영률

■ 학생부 100% 전형 실시대학 (인문 69개교/자연 71개교 실시 예정)

가천의대, 건국대(서울), 경원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죽천), 동국대(서울), 서경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경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협성대, 홍익대 등

■ 면접·구술 전형 실시대학 (면접·구술이 실시되는 일부 학과 기준)

Table showing university admission criteria by percentage (100%, 70%, 60%, 50%, 40%, 30%, 20%, 10%, 10%미만).

■ 논술고사 실시대학 (논술고사 실시 일부 모집단위 기준)

Table showing university admission criteria by percentage (100%, 80%, 70%, 60%, 50%, 40%, 30%, 20%) for essay exams.

나만의 장점 살려야 합격

수시 한달 앞... 대학마다 다른 전형 꼼꼼히 살펴야

2010학년도 대학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 3 수험생들이 수시와 정시지원의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의 수시전형이 매우 다양한 자신에 맞는 전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만큼 꼼꼼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입시전문 업체 진학사의 도움으로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을 살펴봤다.

▲학생부 우수자형=상대적으로 수도권 학생보다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생부 성적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전형이다.

학생부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중심전형과 학생부 100% 전형에 도전해 볼 수 있는데, 2010학년도 수시에서는 건국대와 경원대, 광운대, 성결대, 성신여대, 숭실대, 중앙대 등에서 학생부 100% 전형을 실시한다.

학생부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적용되므로 이를 잘 챙겨야 하고, 수능 성적 또한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부 100%전형과 학생부 중심전형에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므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논술 우수자형=2010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논술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은 대부분 최상위권 대학에 분포돼 있다. 고려대 일반전형(수시 2차), 서경대 일반전형(수시 2차), 서울대 특기자전형 인문계열(수시), 연세대 일반전형(수시 1차), 중앙대 논술우수자 전형(수시 2차), 한국외대 일반전형II(수시 2차), 한양대 일반우수자 전형(수시 2차) 등에서 논술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각 대학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등 출제 경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면접 우수자형=올해 수시는 면접 실시 대학이 지난해 81개교에서 117개교로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대 수시 특기자 전형을 비롯한 단국대, 서경대, 세종대, 홍익대 등에서 면접이 실시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중상위권 대학 일반전형의 경우 심층면접이 이뤄지므로 각 대학별로 기준에 출제됐던 면접문제를 참고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쟁점에 대해서도 신문 등을 통해 개념을 파악한 뒤 본인의 주장을 정리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면접은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판단이 주가 되므로 진실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노력과 역량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두 번 죽은' 30대 장애인 존재 찾기 소송

친가·입양가족 2차례 사망신고--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친가족과 입양가족에 의해 두 번이나 사망신고된 30대 장애인 친가 사망소송을 통해 '존재 찾기'에 나섰다. 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체장애 2급인 성모(34)씨는 최근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사망'상태인 성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찾기 위해선 우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씨는 32년 전 친아버지에 의해 광주 터미널에 버려진 뒤 입양보호소

에서 양아버지 손모씨를 만났다. 손씨는 성씨에게 입양 직전 사망한 막내의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성씨는 지난해 양아버지가 사망하면서 30년간 지켜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잃었다. 양아버지의 자식들이 '친동생은 이미 숨졌다'며 막내의 사망신고를 해버린 것이다.

이후 성씨는 다행히도 친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했지만, 이 곳에도 자신의 '존재'는 없었다. 12년 전 성씨의 집에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가

날아들자 성씨 할아버지가 손자의 사망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성씨는 무료 변호에 나선 모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성씨는 법원에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2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되찾게 된다.

성씨의 어머니 박씨는 "이들은 지금 서류상으로 살아 있지 않고 죽은 사람"이라며 "하루빨리 신분증을 되찾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tables for various regions, and weather icons.

광신대학교 (Gwangshin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the school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Jeonnam (광주·전남 폭염주의보) with temperature details and a warning about heatstroke.

Large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Eye Liasia) eye clinic,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and prices.

Large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Eye Liasia) eye clinic, featuring a chef character and promotional text.